보 도 설 명 자 료
('20. 4. 7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국내 태양광 시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 중으로, 국내 업계가 주도 중 (조선일보 4.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◇ 중국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글로벌 태양광 시장 점유율을 확대 중임에도 불구, 국내 태양광 시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국내 업계가 주도 중

◇ 특히,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전체 매출의 약 62.2%를 담당('18년 기준)하고 있는 태양광 셀(태양전지) 제조기업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음

◇ 4.7일 조선일보 <국내 최대 태양광, 핵심부품은 다 중국산>, <빛 못본 태양광 업체 "매출 반토막...베트남으로 옮길 것">, <1,000억원, 태양광발전으로 사라진 숲의 가치>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□ 원전 대신 태양광 키운다고 했지만, 국내 태양광 산업은 중국에 밀려 위기에 처한 상황

○ 지난 3.27부터 운전 중인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소에 중국산 태양전지가 100%로 사용되는 등 태양전지의 경우 중국산이 국내시장을 상당부분 잠식

○ 중국 기업 대비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상황 속에서 국내 태양광 산업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

□ '17.6월~'18년말까지 산지전용허가 면적은 3,488m^2로 1,040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, 난개발에 따른 위험도 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현재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**가격 경쟁력을 확보**한 중국기업들이 **점유율을 확대 중인 상황**

* 중국기업 점유율(`19) : (폴리실리콘) 64% (웨이퍼) 92% (셀) 85% (모듈) 80%

□ 그럼에도 불구, 국내 태양광 시장은 **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내수시장을 바탕**으로 **우리 태양광 업계가 주도 중**에 있음

○ '19년 기준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**국산 모듈 점유율은 전년 대비 6.2%p 상승한 78.7%로 국내 시장을 주도 중**이며, **중국산 모듈의 점유율은 하락하는 추세**임

* 모듈 국산제품 사용비중 : ('16) 72.0% → ('17) 73.5% → ('18) 72.5% → ('19) 78.7%
* 모듈 중국산 제품 사용비중 : ('16) 28.0% → ('17) 26.5% → ('18) 27.5% → ('19) 21.3%

○ 이에 따라, 우리 태양광 제조업계의 국내 매출은 **'18년 2.11조원**으로 전년 대비('17년 1.97조원) **7.3% 증가함**

○ 또한, **태양광 건설·시공 분야**에서도 국내 업체들의 매출은 약 **2.02조원**(잠정)으로 전년 대비('17년 1.53조원) **32.4% 증가함**

□ 특히,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**전체 매출의 약 62.2%를 담당**('18년 기준)하고 있는 **태양광 셀(태양전지) 제조기업**은 **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도 적극 진출**하고 있음

* 18년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매출 : (전체) 약 6.4조원 (셀 기업) 4.0조원
* 셀 수출규모 : ('17) 1.0억불 → ('18) 1.6억불 → ('19) 3.6억불
* H社의 경우 영국, 독일, 미국, 일본 등 태양광 시장 점유율 1위 차지 (`18~`19)

□ 한편, 기사에서 보도된 **솔라시도 태양광 사업**의 경우, 모듈 기준으로 국산 비중이 약 절반 수준이나, 태양광 구조물, ESS 등 **총 기자재 비용 기준으로 국산 비중이 약 87.1%, 총 공사비 기준은 국산 비중이 약 92.3%**인 것으로 확인됨

□ 산지태양광의 경우 보급초기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어 **‘부작용 해소 대책’(‘18.5월)을 통해 관리 중**에 있음

* ①산지태양광 REC 가중치 축소(‘18.6월, 기존 1.2~0.7→0.7), ② 산지 일시사용허가 제도 도입 및 산지 인허가 경사도 강화(‘18.12월, 기존 25°→15°)

○ 이에 따라, **’19년 산지 전용 허가 면적은 전년대비 58% 감소**함

* 태양광 산지전용·일시사용허가 면적(ha) : (’18) 2,443 → (’19) 1,024

□ 정부는 재생에너지 **보급확대 성과가 태양광 산업활성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** 지난 ‘19.4월 발표한 **‘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’을 수립하여 추진중**에 있음

○ 이에 따라 올해에는 **최저효율제**(‘20.1 시행), **탄소인증제** 실시를 통해 산업 전반의 고효율화,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한편,

○ **세계 최고효율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**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

※ 문의 : 재생에너지산업과 윤성혁 과장(044-203-5370) / 최재홍 사무관(5373)